

‘강진군 이동신문고’ 성료

상담 예약 40건 현장 접수 20건 등 총 60건 완료
행정·농업·산업·건축·도로 등 전반에 걸쳐 상담



지난 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21년 강진군 이동신문고'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민간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 해결의 기회를 마련하는 현장 민원 상담제도다. 이날 이동신문고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접수된 40건의 민원상담 외에

20건의 현장 민원 상담 등 총 60건이 완료되었다.

특히, 일상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려는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행정·문화·교육,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상담 등 전반에 걸쳐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은 상담 민원 중 단순 질의나 바로 해결 가능한 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권고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에 참여한 한 민원인은 "이전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상담을 해준다고 하여 찾아왔다"면서 "조사관이 내 일처럼 친절하게 상담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산림 경영 기반시설 임도사업 추진

사업비 21억7천여 만원 투입...신설임도 7개소 등



장흥군은 효율적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방지는 물론 산림 휴양과 레포츠 등 산림관광 자원을 위해 국고 보조와 군비 사업을 포함한 21억 7천여 만 원을 투입해 2021년 임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고, 주민 소득 향상과 산림관광자원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흥 행원(야생녹차밭)-부산 부춘(노인요양원)을 잇는 간선임도, 호남정맥 사자산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간선임도, 천관산 당동마을 연결임도를 비롯한 신설임도 7개소와 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변 풀베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1985년도 사자산 임도

(안양면 비동리 일원) 1.5km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0개의 임도(노선 182km)를 개설했다.

아울러 제암산~사자산-삼비산을 잇는 호남정맥 종주임도, 호남 5대 명산인 천관산 순환임도를 역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산악자전거(MTB) 코스인 장흥담 돌레길 레포츠 임도와 판매숲 우드랜드를 끼고 도는 역불산 순환임도는 산책과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임도 1km가 개설되면 임야 40ha의 산림경영이 가능해진다"며 "임도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산주의 토지 사용 승낙 등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의회,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성명 발표

“다시 돌아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미래세대 치명적 부담”

완도군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에 나섰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일본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 톤을 해양 방출하기로 공식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아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으로 수산업은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 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큰 실정이며, 수산업이 주력산업인 완도군에 타격이 될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19일 임시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 공개, △오염수 처리 방안 국제 사회와 협의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완도=이민혁 기자

해남군, K-푸드 대표 김치 지키기에 앞장선다

관내 음식점 전수조사...국산김치 사용 인증판 부여



우리나라 대표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이 국산 김치 지키기에 나섰다.

해남군은 코로나 장기화와 최근 중국산 절임배추 파동으로 인해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K-푸드의 대표주자인 김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내 모든 음식점에서 국산 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모든 일반음식점 850개소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배추와 고춧가루 등 김치 재료의 생산지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산 김치 사용업소와 해남산 배추로 만든 김치 사용업소에는 인증 안내판을 부착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김치를 국산김치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배추 주산지로서 자부심을 지키며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음식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최대 '월 250만원' 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최대 8개월간 지급

진도군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통해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가을철에 벼 수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출하를 계약한 벼 수매 금의 60%를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군이 이지를 보전해줘 농민들은 이자 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월급제 기준 면적 하향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월급 수령 시기를 매월과 분기 등 자율 선택이 가능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최대 8개월간 지급되며, 지난해 실시한 농업인 월급제에는 316개 농가가 참여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가들의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